

태권도, 연기, 방송, 역사공부 등 마음을 움직이는 일에 꾸준히 몰두해온 파비앙.
기울의 문턱에서, 한국 생활과 한국 역사에 관한 파비앙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동네 한 바퀴
길 하나 너머로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
부산 초량
차이나타운과
텍사스거리

뷰파인더
외국인
부동산 규제,
투기는 막고
투자는 늘려야



VOL. 53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공존」 53호 독자분들께

어느덧 바람이 선선해지고 노을과 단풍이 붉게 타오르는 가을이 왔습니다.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된 감염병 상황이 안타깝게도 지속되고 있으나, 각자의 위치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월부터 유지해왔던 코로나19에 대한 비상대응 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민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을 출범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신청과 같이 간단한 민원인 방문 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대면 민원처리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초기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운영하며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의 3자 통역을 제공하는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외국인이 신속하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루 8·15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였고, 9월 24일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재한외국인을 선정하여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분들을 기리고 재한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기여한 바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 규 근



「공존」 통권 제53호 비매품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20년 10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전화번호 02-2110-4019
기획 및 디자인 한국표준협회미디어(02-6240-4900)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PEOPLE ZONE

4

나에게 한국은
‘명사’ 아닌 ‘동사’로 기억되고 싶어요
- 파비앙 코르비노(Fabien Corbineau)

8

동네 한 바퀴
길 하나 너머로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
부산 초량 차이나타운과 텍사스거리

12

심포카페
‘살고 싶은 마음’을
안겨주는 사람, 친구

14

마음을 잇다
한국사회의 일원이라는
마음을 담아

16

문화돌보기
Here&There, You&Me
- 당진 아미미술관 전시 소개



12



4



8



18



32

WIN-WIN ZONE

18

출입국 인사이트 ①
제75주년 광복절 독립유공자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출입국 인사이트 ②
법무부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 개소

22

이런 게 적극행정!
외국인 안내는 우리에게 맡겨라!
1345 콜센터

28

어울림 공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32

뷰파인더
외국인 부동산 규제,
투기는 막고 투자는 늘려야

36

손에 손잡고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

38

슬기로운 한국 사용법
외국인 민원업무,
Hi-Korea로 Hi-pass!

40

출입국 인사이트

'명사' 아닌 '동사'로 기억되고 싶어요

글 | 김소리 사진 | 엄태현

파비앙 코르비노
(Fabien
Corbineau)



파비앙은 하루아침에 유명해진 ‘스타’가 아니다. 오히려 태권도, 연기, 방송, 공부 등 원하는 일에 꾸준하고도 뜨겁고 몰두해온 사람이다. 얼마 전에는 한국인도 어렵다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국에서 맞는 12번째 가을, 서촌의 한 역사서적 책방에서 파비앙을 만났다.

어떻게 한국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나요?

●
5살 때부터 태권도를 했어요. 제 유년기와 학창시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태권도였죠. 자연스레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생겼어요. 그러다 2007년에 처음 한국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3개월간 머물다 돌아갔는데, 프랑스에서도 한국 생각만 나더라고요. 어떻게든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가 대학 마지막 학기였는데 졸업하자마자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유럽에서 온 20대 초반의 저에게 한국은 천국 같았어요. 유럽은 고전적이지요. 그에 반해 한국은 역동적이고 현대적이었어요. 낯선 문화가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 점들이 제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겼던 것 같아요.

한국에 ‘정착’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었나요?

●
특별한 계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한국에 다시 돌아올 때도 당연히 장기적인 계획이나 목표는 없었어요. 언어도 문화도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로 시작했어요.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두 학기를 등록했죠. 6개월이었어요. 그 뒤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6개월이 2년으로, 또 다른 장기비자로 연장됐어요.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어갔고, 든든한 친구들도 사귀게 됐죠. 어느 순간 보니까 원룸에서 살고 있고, 소파랑 TV도 있더라고요. 그때 ‘어, 내가 한국에 살고 있네?’하는 생각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기회들이 늦지 않게 잘 찾아왔나봐요. 그걸 딛고 딛고 지금의 파비앙이 있는 걸 테고요.

●
찾아온 것도 있고, 찾은 것도 있어요. 사람들은 방송에 나오는 모습만 보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어요. 1년 동안 거의 매일 대학로에 갔는데, 극단 오디션에 몇 번이나 떨어졌는지 몰라요. 겨우 들어가서도 6개월 동안 청소만 했죠. 처음 무대에 섰던 것도 더블캐스팅인데다 비중도 적었어요. 당연히 출연료도 없었고요.

사실 한국에 온 것 자체가 저로서는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프랑스 친구들은 학교 졸업 후 다들 잘됐어요. 저도 졸업 후 괜찮은 기업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걸 포기하고 한국에 왔어요. 서포트해주는 사람도, 경제적인 지원도 전혀 없었죠. 마이동풍으로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시선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노력과 시간은 어떤 식으로든 쌓이고 있었더라고요. 어느 날 주머니를 뒤졌더니 하나씩 꺼낼 것들이 있는 거죠. 한국어를 안 배워뒀으면 방송도 인터뷰도 못 했을 거고, 연극을 안 했으면 한국의 서열문화를 제대로 배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다 의미 있는 것들이었죠.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이었나요?

●
역시 비자예요. 그야말로 ‘비자여행’을 했죠. 경험 안 해본 비자가 없어요. 언젠가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이곳에서의 생활을 마감해야 될 수도 있다는 불안함을 늘 가지고 있었죠.



두 번째로 힘들었던 건 서열문화예요. 극단이 그런 문화가 심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어린데다 외국인이었으니 더 짓궂게 당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전화위복이 됐어요. 밀바다부터 배우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겪어도 다 견딜 수 있게 되더라고요(웃음).

한국에 와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었지만, 내 문화가 아닌 곳에 내가 온 거니까 항상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상식이나 신념이 충돌할 때도 있죠. 그렇기에 더욱 역지사지의 자세, 이곳의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합격 축하드립니다. 그 전부터도 역사박물관에서 외국인 해설사로 활동하시는 등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 처음 왔을 때부터 한국의 역사적인 흔적들과 이야기에 마음이 갔어요.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건 2~3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한국어로 된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됐거든요.

번역 역사서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글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전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시험은 끝났지만 더 공부해보고 싶어요. 재미도 붙었고요.

프랑스인과 한국인의 경계에 있는 파비앙이 바라보는 한국 역사는 자국민이 보는 것과 어떻게 다를지 궁금해요.

● 아무래도 자기나라 역사는 감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한국 사람들이 ‘한’이 많다고 하잖아요. 늘 외부의 위협과 침략에 시달렸다, 식민 지배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면도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긴 역사는 세계적으로도 그리 많지 않아요. 훌륭한 통치 방식이나 대단한 인물들도 많았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뛰어나죠. 공부하면서 캄캄캄했었어요. 자국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한국 역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생각이 있다면요?

● 하나씩 수수께끼가 풀리는 느낌이에요. 한국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날 때부터 ‘빨리빨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조선인들은 풍류와 인생을 즐기는 여유로운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외침과 전쟁을 겪으면서 생존을 위해, 이후에는 경제성장을 위해 빨리빨리 움직여야 했던 거죠.

인간적으로도 역사 공부에 큰 도움이 됐어요. 역사속 인물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면서 저를 돌아보는 거죠. 역사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역사 지식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도 언젠가 역사가 될 테죠. 한국 역사가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이 있나요?

● 삼국시대도 조선시대도 이 나라는 외국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살았어요.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되겠죠. 저는 12년 전과 지금 한국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또렷하게 봤어요. 앞으로의 한국 역시 많이 달라질 텐데, 국제적인 소통과 연대가 한국에 많은 기회를 안겨줄 거라고 생각해요.

“

저에게 한국은 ‘전환점’입니다. 제 진짜 인생은 한국에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

파비앙에게 한국은?

●
저에게 한국은 ‘전환점’입니다. 제 인생은 한국에 오기 전과 후로 완전히 나뉘어요. 졸업하자마자 왔으니 프랑스에서는 공부, 알바, 가족, 친구들이랑 태권도한 기억이 전부예요. 제 인생의 3분의 1이 훌쩍 넘는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고, 수많은 ‘처음’을 한국에서 경험했어요. 아는 사람도 한국에 훨씬 많고, 프랑스보다 서울이 훨씬 익숙하죠. 제 진짜 인생은 한국에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양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이 열심히 끝에 있는 파비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
‘자아실현’이에요. 정확히 설명하기는 애매하지만, 구체적인 도착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과정 자체가 제 목표인 것 같아요. 저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할 때 두 가지 규칙이 있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행복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나 명성과는 달라요. 앞으로도 제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다면 작은 목표를 세워가며 하나씩, 즐겁게 성취해가고 싶어요. 전직 태권도 선수, 방송인, 배우 등의 수식으로 규정되기보다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12년 전의 파비앙처럼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는지보다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느냐인 것 같아요. 의지만 있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든 원하는 곳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살며 많은 외국인을 봤는데, 결국 한국에 대한 애정과 의지를 가진 분들이 오래 남으시더라고요. 열정을 가지고 한국에서 꿈꾸는 일을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선배로서 환영합니다! 共



길 하나 너머로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 부산 초량 차이나타운과 텍사스거리

글 | 김소리 사진 | 하지홍





부산역 맞은편, 차이나타운 입구를 알리는 화려한 금문(金門)과 붉은색 거대한 상해문(上海門)이 나란히 웅장하다. 안으로 들어서면 거리를 수놓는 색과 언어가 순식간에 달라진다. 경계 밖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다.

부산 속 중국, 초량 차이나타운

부산 초량동 차이나타운은 중국의 한 거리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느낌을 준다. 홍등과 금빛 동상들, 화려한 중국식 건축물이 걸음걸음 방문객의 눈길을 붙든다. 화교가 운영하는 중식당과 중국식 주전부리를 파는 독특한 가게들도 눈에 띈다.

부산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좋은 초량에는 아시아 각국의 이주노동자를 위한 가게가 즐비하다. 중국인과 러시아인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사람들도 자주 오간다. 고향의 음식을 그리워하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나라의 음식 재료상도 찾아볼 수 있다.

차이나타운에서 가장 유명한 먹거리는 산동식 만두다. 정확히는 산동지방 가정집에서 손으로 빚어 먹는 '교자'인데, 우리가 아는 일반 만두보다 크기가 크고 튀기듯 조리해 식감이 바삭하다. 처음 초량에 정착한 사람들 중에 산동지역 출신이 많았다. 이들이 고향에서 즐겨 먹던 교자를 팔기 시작하면서 산동식 만두는 부산 차이나타운의 명물이 됐다. 이곳 만두가 유명해진 계기가 또 하나 있다. 영화 「올드보이」에서 주인공 오대수(최민식 분)가 15년간 먹은 군만두가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진 것. 「올드보이 만두집」으로 알려진 해당 중식당 입구에는 영화의 한 장면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삼국지 인물들이 수놓인 담벼락을 만나면 화교소학교를 잘 찾은 것이다. 화교유치원과 소학교, 중고등학교 모두 초량 차이나타운 내에 위치해 있다. 화교 자녀들은 이곳에서 대만식 교육을 받으며 자란다.

초량근대역사갤러리는 과거 초량과 부산역, 부산항 일대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옛 초량은 하얀 모래와 푸른 소나무가 있던 해변이라 하여 '백사청송'이라 불렸다. 조선시대 일본인의 입국과 교역을 위해 설치하던 '왜관'도 초량에 있었다. 이후 일본이 초량을 대륙 침략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인근의 영선산을 깎아 바다를 메웠고, 매축된 땅 위에도 시의 기반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청관거리에서 상해거리까지, 초량 차이나타운의 역사

중국인 이민자로서 자신의 국적과 전통,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을 화교(華僑)라 부른다. 초량 차이나타운과 화교의 역사는 18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개항기 초량은 그야말로 국제적인 곳이었다. 1884년 청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청국 영사관이 초량에 들어섰고, 치외법권이 보장되는 '전관조계지'가 형성되면서 중국인이 경영하는 점포와 집이 하나둘 늘어났다. 이 일대는 '청관거리'라 불리며 중국에서 가져온 비단과 포목, 꽃신, 거울,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로 북적거렸다.

약 100년 뒤인 1993년, 부산시와 상해시가 자매도시협정을

맺으며 이곳은 '상해거리'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상해시가 도시 간의 우호를 상징하기 위해 '부산거리'를 조성하자 부산시도 이에 맞추어 차이나타운 일대를 상해거리로 조성하고 대대적인 단장을 한 것이다. 화교 집단거주 역사를 기념하는 상해문도 이때 세워졌다.

차이나타운을 지켜온 사람들

초량 차이나타운 내에 자리한 중화요리재료상 '건일행(乾一行)'은 중화요리에 들어가는 고급 식재료를 판매하는 곳이다. 건일행 사장 곡야정 씨의 아버지는 70년 전에 중국에서 건너와 초량에 정착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해 4남매를 낳았고, 그중 곡야정 씨가 막내다. 그는 아버지가 하던 가게를 이어받아 벌써 30년이 훌쩍 넘게 운영해오고 있다.



곡야정 씨는 초량에서 태어나 줄곧 초량에서 자랐다. "옛날엔 이 거리가 다 흙길이었어요. 친구들과 흙장난을 하며 놀았죠. 중국 상인들도 많이 왔어요. 중국 비단을 가지고 와서 팔고, 이곳의 물건을 사서 돌아갔죠. 언제나 사람도 많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초량 차이나타운은 상인들 간의 관계도 다른 시장에 비해 독특하다. 상당수가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함께 나고 자란 화교들이기 때문이다. 서로의 가정사와 개인적인 부분까지 잘 알고 신뢰하며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이이다.

곡야정 씨도 아버지처럼 한국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았다. “화교와 중국 본토인의 마음은 좀 달라요. 중국인들은 이해관계로 한국에 오지만 저 같은 화교는 한국이 고향이죠. 대개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예요.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해도 외국인이지만 저와 저희 자녀들은 사실상 한국인이예요. 뿌리도 다 한국에 있고요.”

그렇기에 화교 통합 정책이 못내 아쉽게 느껴진다는 곡야정 씨. “미국에서는 자녀를 낳으면 바로 미국 국적을 주지만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과 결혼해 아이를 낳아도 외국인입니다. 저도 제 자녀들도 외국인증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증을 받으면 ‘나는 외국인이구나, 한국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반대로 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들은 ‘나는 외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구나’하고 생각할 겁니다. 후자가 나라에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한국에 애정과 소속감도 커지고, 군 복무 등 국민의 의무도 다할 거고요.” 그는 국민의 기준이 더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대만에 가면 저와 제 자녀들을 한국인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표류하는 마음들을 끌어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초량 텍사스거리의 어제와 오늘

텍사스거리는 차이나타운과 맞닿아 있지만 전혀 다른 분위

기를 자아낸다. 외국인, 특히 미군이나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유흥주점과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환전소, 휴대전화 매장, 음식점과 식료품점 등이 골목을 따라 자리하고 있다.

한국전쟁 때 미군을 상대로 한 유흥주점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이곳에 텍사스거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술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생필품을 팔면서 자연스럽게 이국적인 거리가 형성됐다. 원래는 인근의 중앙동 쪽에 모여 있었으나 대규모 화재가 나면서 부산역 맞은편인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다. 1980년대 말부터 국내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가 줄어들면서 텍사스거리는 점차 활기를 잃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이내 제2의 전성기가 찾아왔다. 90년대 들어 러시아와 한국이 수교를 맺으면서 러시아인들로 주 고객이 빠르게 대체된 것이다.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러시아 화물선은 러시아 선원들과 보따리상인을 부지런히 실어 날랐다. 거리의 영어 간판은 러시아어로 바뀌었고,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주점과 점포가 늘어났다.

과거 부산사람들 사이에서 텍사스거리는 위험한 곳,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유흥거리라는 인식이 강했다. 길을 에둘러 가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도시정비로 새 단장을 하면서 텍사스거리는 더욱 특색 있는 분위기를 자랑하게 됐다. 사진을 찍으러 방문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부산에 들르게 되면 잠깐 여유를 내어 역 건너로 발길을 옮겨보자. 이방인에게 가까이 품을 내어주었던 부산의 진짜 얼굴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共**

‘살고 싶은 마음’을 안겨주는 사람, 친구



글 | 이수련

학업이나 직무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면 삶의 기반이 다져졌다고 한다. 고국을 떠나 외국에서 살기를 결행하는 이유도 대개는 이를 위해서다. 토마스 조이너에 따르면 삶의 기반은 ‘소속감’과 ‘효능감’을 포함한다.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직장에서 일하면 소속감이 생기고 성과, 지위, 수입을 통해 능력을 입증하며 효능감을 느낀다. 하지만 경험해보면 알게 된다. 이러한 성취와 효능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니, 학생이나 직장인으로서만 평가되면 오히려 더 큰 소외감이 들기도 한다. 진짜 나는 사라지고 학생 혹은 직장인으로서의 나만 남은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사회적인 소속감과 효능감이 삶의 기반을 다져줄 수는 있다. 하지만 ‘살고 싶은 마음’은 한 사람으로서의 나,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나로서의 소속감과 효능감을 필요로 한다. 사적인 삶에서 가치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프랑스에서 유학 생활을 꽤 오래 했다. 유학 초기에 결심했다. '한눈팔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자!'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너무나 외로웠기 때문이다. 수업이 끝나면 누구도 만나지 않고 곧장 집으로 와서 책을 펼치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립된 환경에서 오는 외로움을 견뎌내기가 어려웠다.

그런 필자를 구원해준 건 마르셀라라는 브라질 친구와 그 가족이었다. 같은 과 학생이었던 마르셀라가 내게 뭔가를 물어보면서 말을 트게 되었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면서 친구가 되었다. 마르셀라가 브라질에서 온 가족에게 나를 '정말 소중한 친구'라고 소개해준 날이 또렷이 기억난다. 마르셀라 가족의 따뜻한 환대가 움츠러들었던 내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후 용기를 내어 다른 친구들에게도 손 내밀 수 있었고,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 소중한 관계들을 맺어갔다. 학업에도 전보다 열중할 수 있게 됐다. 그제야 프랑스 유학생들의 기반이 다져진 것이다.

아무 매개 없이 오직 '나'로서 맺는 우정의 관계야말로 우리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주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한다. 문제는 소중한 친구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고국이 아닌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면 더욱 그렇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 두 분이 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평소에 필자가 생각하던 것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했다. 그들은 친구들 덕분에 덜 힘들고, 기운이 난다고 말했다. 그리고 서로 비슷해서 친구가 되기도 하지만 달라서 친구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상대가 자신과 비슷한 점만 좋아할 거라는 편견을 내려놓을 때 좀 더 대담하게 타인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며 서로 다른 국적 역시 장점이 될 수 있다.

외국인은 다른 외국인과 친구가 될 기회와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려 있다.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 교

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한국인들은 폐쇄적이라 외국인 친구들을 잘 안 사귀다'라는 편견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길 바란다. 어느

나라의 국민들처럼 한국인

도 하나의 통일체가 아니라 여러 부

류의 사람이 섞인 혼합체다. 그중 누구를 만

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지금 내 주변에 나와 친구가 되고자 하는 한국인이 없다면 다른 곳에 거하는 한국인을 만나보면 된다.

학교나 직장은 사람을 가장 쉽고 규칙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이지만 성과나 능력으로 서로 라이벌이 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같은 처지라 서로 위로할 수도 있지만 비교하면서 마음이 심란해지기도 한다. 청소년이나 직장 동료 사이의 우정이 꽤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때문에 그런 관계를 보완해줄 또 다른 관계,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아 무조건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 때로는 내 생활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장소에서, 전혀 상관없는 주제를 공유할 사람을 만나봐도 좋을 것이다.

외국에서 살아가려면 자국에서보다 좀 더 진지한 결심이 필요하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도 더 클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산다고 해도 '살고 싶다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 외국에 나와 공부하고 일한다는 이유로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소속감이나 효능감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면 삶이 빈껍데기처럼 굳어버릴 수도 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에게는 삶을 살아볼 만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친구가 있는가? **共**



이수련님은 프랑스 파리7 대학 정신병리학 박사, 프랑스 국가공인 임상심리학자이자 심리치료사, 정신분석가로 현재 서초동 한스아동청소년상담센터에서 정신분석 임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일원이라는 마음을 담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우리사회 곳곳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겼다. 한국에서 터를 잡고 지내는 외국인들 역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한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여러 방법으로 마음을 전하고 있다. 방역물품과 지원금을 모아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거나 통역 자원봉사로 외국인 방역관리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생활에 밀접한
도움을 주는
'음성군 외국인
통역 콜센터'**

충북 음성군은 전체 인구 10만여 명 중 8.9%인 약 9,100명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지역이다. 때문에 음성군에서는 이들의 정착과 생활을 돕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외국인 통역 콜센터를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외국인 콜센터가 방역관리에 큰 역할을 맡게 되었다. 45명의 외국인의 자원봉사자가 코로나 관련 통역 지원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외국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의 자가격리 지침 설명부터 자가격리 앱 사용법 안내까지 통역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활약 중이다. 현재는 베트남, 네팔, 스리랑카,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의 16개국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이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늦은 시간까지 통역을 제공한다.

콜센터를 관리하는 음성군 민원실은 “자원봉사자들은 원래 기간제 임명직이었으나, 코로나19 시국이 지속하는 상황에 맞춰 연장할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전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주말뿐만 아니라 늦은 밤에도 코로나19 관련 긴급통역을 요청하면 흔쾌히 도와주는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맙다”는 감사의 말을 남겼다.

**시흥시 중국인 공동체,
“받은 것을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지난 3월, 경기도 시흥시 외국인센터를 중심으로 한 중국인 모임 ‘중국인 공동체’가 시흥시 정왕보건지소에 소독약 230만 원어치를 기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문화 가정 및 중국인 노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중국인 공동체는 시흥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동체 측은 “이번 모금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받은 것이 많으니 우리도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며 “본래는 마스크를 전달하고 싶었으나 수급문제로 소독제를 전달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편지를 통해 보건소 측에 “시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 등 많은 곳의 도움을 받았는데 지역사회에 도움을 되돌려 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흥시에 작은 힘을 보태고자 방역물품을 기탁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주 파키스탄인,
꾸준한 기부와
봉사 이어와**

시흥시에 거주하는 파키스탄인 압잘 무하마드 씨는 지난 3월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에 140여만 원을 기부했다. 압잘 씨는 “처음 한국에 와서 힘들 때 한국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잘 지낼 수 있었다”며 “이제 한국인과 결혼도 했고, 잘 정착해 살게 된 만큼 이를 돌려주고 싶었다”고 기부 동기를 밝혔다. 또 그는 대구시민을 위해 100여 장의 마스크도 후원했다.

압잘 씨는 “한국에 온 지 15년이 됐는데, 처음 왔을 때 도움을 받은 것들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기부와 봉사를 이어갈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자율 방법대 활동, 김치 담그기 등 한국인과 한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지속해온 공로가 인정돼 국회의원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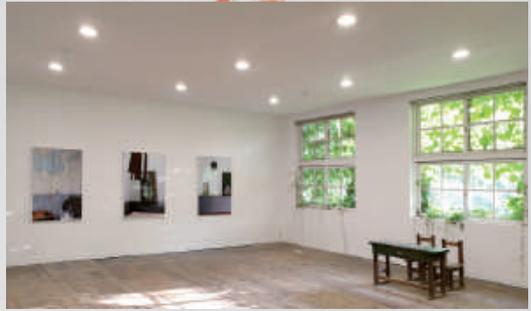
Here&There, You&Me

- 당진 아미미술관 전시 소개

설치미술가의 손길로 오래된 폐교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옛 유동초등학교 건물을 재단장한 아미미술관은 지역의 건축과 생활상을 오롯이 보존하고 시간의 흐름 속 사라지는 것들을 발견해 공유하는 생태미술관이다. 개관 10주년을 맞은 아미미술관에서 개인의 지역적 정체성 그리고 공존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는 전시를 진행 중이다.

글 | 김소리 사진 | 아미미술관





공간은 머무는 자의 일부가 된다 _ Here&There 展(김영식 외, 조각·설치·사진 등)

8명의 당진 출신 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조각(배효남·백태현·전용환), 설치(김영식), 사진(이강우·인주리) 외에 나무껍질과 한지의 조화(이중호), 판넬에 붙인 천을 갈아 인물과 자연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최상근) 등 장르도 다양하다.

이곳에서 작업하는 작가도(her), 타지에서 작업하고 있는 작가도 있지만(there) 모두 유소년기는 당진에서 보냈다. 고향은 사람의 근간을 이루고, 이후의 환경은 그 근간에 끊임없이 변화를 가한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도 당진 그리고 당진 바깥의 시공간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친 결과물이다. 고향은 주어지는 것이고 이주는 선택하는 것이다. 내 손을 떠난 것들과 내가 선택한 것들이 합쳐져 온전한 '나'를 이룬다.

우리가 함께 빛난다는 것 _ 共存 展(김순미, 목공)

과거 교장선생님의 사택이었던 한옥 건물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전시장으로 재단장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共存 展의 메인작품 <이번엔 네 차례야>는 작품을 하나씩 따로 보면 저마다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담거나 피사체를 촬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모이놓으면 어두운 곳에서 타인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각자가 휴대폰 불빛으로 조명을 밝혀주는 모습이다.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이 작품의 모티프가 됐다. 어두운 여행지에서 한 팀씩 돌아가며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람들이 휴대폰 불빛을 비춰주던 모습이였다.

'공존'은 손해나 희생이 아니다. 내 작은 빛을 내어줌으로 나 역시 더 큰 빛 안에 놓이게 되는 일이다. 각자의 작은 빛이 큰 어둠을 지워가는 사회야말로 건강하게 공존하는 사회가 아닐까.

<여기서 좀 비밀주세요>는 한옥 부엌 곳곳에 다양한 모양의 고양이들을 전시하고 있다. 고양이는 독립적인 동물이지만 다른 생명체와 느슨하게 연결되거나 적당히 함께하는 일에도 능숙하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홀로는 버거운 세상이다. 부엌 속 고양이들에게서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우리'로 존재하는 법을 엿본다. **共**





독립 위해 몸 바친 선열의 후손, 대한민국 국민 되다

- 제75주년 광복절 독립유공자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지난 8월 12일, 광복절을 맞아 법무부 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독립유공자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독립유공자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은 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독립유공자후손들을 발굴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뜻 깊은 자리다.

글 | 김소리 사진 | 신세호





**독립유공자후손
국적증서 수여의
법적 근거와 현황**

독립유공자후손 국적증서 수여는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국적법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를 근거로 한다.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4회 수여식을 개최해 365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한 바 있다. 올해는 독립운동가 박찬익 선생의 증손 등 2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이 돌아갔다.

**선조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

이날 수여식에는 독립유공자후손과 가족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추 장관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일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가교와 같다”며 수여식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한국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원웅 광복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친일을 청산하고 조상들이 만들고자 했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독립유공자후손 국적수여에 대한 축하도 이어졌다. 김지석, 홍지민, 한수연 등 독립유공자후손 연예인의 축하 메시지와 한·중 부부독립운동가의 손자이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두닝우의 축하 연주 ‘아리랑 판타지’를 영상으로 감상했다.

독립유공자 공적 소개 후 광복군총영 대장, 대한통의부 헌병대장 등을 지낸 안홍 선생의 후손 양홍철, 양지은 두 사람이 후손 대표로 국민선서를 낭독했다. 대한독립의군부를 창설하고 대한독립선언서 발표에 민족대표로 참여한 박찬익 선생의 후손 송미령 씨의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 “할아버지를 만난 적은 없지만 나라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희생정신을 잊은 적이 없었다”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0여 년이 흐른 지금, 한국 땅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선서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받게 되니 감격스럽다”고 전했다.

이날 국적수여 대상자 중 한 명인 리연수(이연수) 씨를 축하해주기 위해 자리에 함께한 그의 할머니 지옥금 씨는 “6살 때 혼자 러시아 한인섬에 남겨져 올해 82살이 됐다. 손자가 한국 국민이 되는 모습을 보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며 특별한 소회를 밝혔다.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들이 조국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패와 소정의 선물을 수여했다.



코로나19를 ‘전담 마크’하다

– 법무부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 개소

법무부는 그동안 각 부서별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분산하여 소관 업무와 겸임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8월 27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을 구성했다. 긴급대응단 운영을 통해 법무부는 더욱 밀도 있고 체계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글 | 김소리 사진제공 | 신세호



**법무부 코로나19
대응 업무의
새로운 컨트롤타워**

지난 9월 4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이하 ‘대응단’)’ 현판식이 개최됐다. 코로나19 관련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설한 대응단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 ▲교도소·소년원 등 수용·보호시설 확산 방지 ▲지역사회 체류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해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비롯한 10여 개 관계기관 정보제공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각 부서별로 분산하여 소관 업무와 겸임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6개월 이상으로 장기화하면서 담당 직원의 피로도가 누적됨에 따라 코로나19 외국인 대응 관련 업무의 비중이 가장 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긴급대응단을 신설하게 되었다. 한편 2020년 8월 현재,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 타부처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단(반)을 운영 중이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철병 되어주길**

긴급대응단은 3팀 7명 규모로 구성되어 ▲24시간 긴급상황 대응 ▲해외유입 차단 ▲관계기관 협력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코로나19 확산 및 관련 업무량 추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운영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은 “그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코로나19 상황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준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설된 긴급대응단이 방역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共**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 조직



총괄 대응계

코로나19 관련 각종 회의결과에 대한 부서별 업무 조정 및 상황 총괄



국내외 대응계

- 입국 및 체류외국인 관리
- 관계기관 요구자료 제공
- 사증발급 및 등록외국인 재입국 관리



긴급상황 대응계

코로나19 긴급상황에 대비한 24시간 비상 대응



외국인 안내는 우리에게 맡겨라! 1345 콜센터

1345 Call Centre spearheads efforts to support non-nationals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인 1345 콜센터는 대한민국 외국인 안내 업무의 선봉에 서 있는 곳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위기 순간마다 정부 방역 과정에 통역으로 힘을 보태왔다. 여전히 해외입국 외국인의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 순간에도 외국인에게 올바른 생활 및 방역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The 1345 Call Centre, run by the Ministry of Justice, is in the front line of providing solutions and answers to question from non-nationals. Ever since the spread of COVID-19, providing interpretation service became an added role to this Centre to support the Government's fight against the virus. As we are still witnessing imported cases of COVID-19 by non-nationals, the Centre is not sparing its effort to provide the right information to keep the nation safe in the midst of the pandemic.

독보적인 국내 외국인 전용 정책 콜센터

A dedicated call centre for non-nationals in Korea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콜센터(이하 '센터')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더욱 바빠진 부서 중 하나다. 외국인의 생활 전반에 대한 정책 안내를 도맡고 있는 곳답게 출입국, 체류 연장, 자가격리 등에 대해 문의하는 외국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센터는 2008년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라 재한외국인들의 출입국 행정에 관한 민원 상담과 생활정보 제공을 위해 설립됐다. 100여 명의 상담사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20개국의 언어로 상담을 담당하며, 중앙행정기관 등 18개 기관과 MOU를 체결해 업무 상담 및 진행에 필요한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담 건수도 예년과 비교해 눈에 띄게 늘었다. 전체 상담은 지난해보다 약 21%, 3자 통·번역은 약 300% 증가했다. 중국에서 입국한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의 역학조사 통역, 3월 대구지역 확산 당시 의료진과의 통역 등 긴급한 방역의 순간에도 센터의 눈부신 활약이 있었다.

Immigration Contact Centre, or commonly known as 1345 Call Centre (Centre) has become busier than ever with the spread of COVID-19. This Centre is serving as a control tower of providing answers to a wide spectrum of endless flow of questions from non-nationals ranging from small questions to visa extension and self quarantine.

The 1345 Call Centre was opened in 2008 as requested by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o provide solutions and answers to typical questions newcomers have including those on immigration matters. It is served by around 100 representatives who provide services in 20 different foreign languages, primarily in English, Chinese and Vietnamese. The Centre also signed an MOU with 18 central government bodies and provides 3-way interpretation service upon request.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 상담 건수

Number of calls processed at Immigration Contact Centre (1345 Call Centre)

(단위: 건 / unit: calls)

연도 Year	2018	2019	2020 (8월 기준/as of August)
상담 건수 Call processed	2,488,450	2,524,421	1,999,649

2020년 전체 상담 중 코로나19 관련 건수(8월 기준)

The share of enquiries relevant to COVID-19 in 2020 (as of August)

(단위: 건 / unit: calls)



The Centre is handling a dramatically increased volume of incoming calls with the spread of COVID-19 – a 21% increase of incoming calls and a 300% increase of 3-party interpretations. When we saw the first imported case of COVID-19 from China earlier this year and a large-scale infection broke out in Daegu in March, interpretation service provided by the Centre played an integral role in dealing with the pandemic.

누구보다 빠르게 코로나19 대비

An agile organisation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1345 콜센터는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된 1월 말부터 신속한 상담을 위해 평일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외국인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질병관리청과의 3자 통역 서비스 등을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센터 직원들은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 높은 서비스 품질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상담 건수 폭증과 함께 24시간 체제로 전환 운영되면서 피로가 누적된 직원들을 위해 추가 인력도 확보했다. 지난 4월부터 6명의 추가인력을 투입해 2~3월 대비 4~5월 평균 응대율을 약 5% 끌어올렸다.

또한, 콜센터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및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존 사무실

을 목동과 염창동 두 곳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곳인 만큼 감염자 발생으로 콜센터를 전면 폐쇄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외에도 직원 간 차단 가림막 높이 조정, 개인 헤드셋 사용, 마이크 소독, 손 비치 등 개인위생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Ever since we saw a rise in COVID-19 infections from late January this year, the 1345 Call Centre started to run 24 hours on weekdays in response to provide 3-way interpretation service with KDCA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to respond to imported suspected cases in a timely manner.

Representatives working at the Centre are doing their best with professionalism and commitment to provide useful and accurate information, but as the Centre is now run 24 hours we hired six more representatives to alleviate their fatigue. This resulted in processing additional incoming calls by 5%p on average during April and May compared February – March period.

We have also seen disturbing news of mass COVID-19 infections among call centre employees and to prevent such an incident hitting our Centre, we de-centralised our Centre into two different locations in Mok-dong and Yeomchang-dong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코로나19 관련 조치

Measures implemented in the Centre in response to COVI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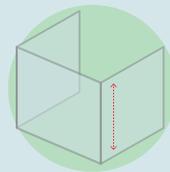
24시간 운영 전환
24 hour service



추가상담인력 투입
More representatives



콜센터 이원화
De-centralisation



직원 간 차단 가림막 높이 조정
Plastic screens



개인위생 물품 지원
Spotless sterilisation

to allow proper distancing among representatives and to minimise damage should such an incident occur. Additional measures include installing plastic screens between representatives and providing microphone sterilisers to name a few. As we know the damage non-nationals have to suffer if our Centre is closed down due to COVID-19 outbreak, utmost safety measures are practiced at all times.

외국인의 한국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모색

Providing information and services needed to support settlement of non-nationals

현재 센터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관련 행동수칙과 예방법 및 선별진료소 위치 안내 등의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과 협업해 3자 통역을 제공함으로써 유증상자의 신속한 관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각종 서비스를 세심하게 시행하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을 위한 마을 변호사’ 제도가 대표적이다. 전담 변호사를 위촉해 기본적인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때도 자국어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정보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5월부터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질의응답 게시판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대표번호 1345를 통한 전화 상담뿐 아니라 텍스트 상담도 가능해진 것이다.

센터는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정책의 알리미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자가진단 앱 ▲생활(검사)시설 입소 안내문 ▲격리조치위반 시 처벌 안내문을 번역하는 등 외국인들에게 관련 정책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정보 번역 및 감수 업무를 적극 수행 중이다.

센터는 앞으로 증가하는 재한외국인과 관련 내국인 수에 맞춰 상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 및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갖추어나갈 계획이다. 안팎으로 끊임 없는 발전을 도모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가 앞으로도 명실상부한 외국인 관련 전문 상담 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길 기대해본다.



The Centre is providing information on preventing COVID-19 infection and COVID-19 Screening Centre locations in multiple languages and is working with KDCA to handle COVID-19 patients in a timely manner by providing 3-way interpretation service as the pandemic is, inevitably, poised to be with for quite some time. Not only dealing with COVID-19, the Centre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a wide range of services non-nationals need for settlement in this country. One good example is “Community Lawyer Programme for Non-nationals”. When they need legal counseling, they can enjoy tailored service from a dedicated lawyer and interpretation service is also provided. To ensure better convenience and allow greater accessibility to more information, the Centre opened an online Q&A bulletin board at Hi Korea website (www.hikorea.go.kr). This means both telephone and web-based services are now offered.

The Centre also acts as an agency to promote policies introduced by central Government bodie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It promotes our self-diagnosis app, instructions on how to visit testing facilities and penalties imposed by breaking self quarantine requirements in multiple languages to name a few.

The Centre offers more sophisticated services by upgrading capabilities of representatives as we expect to see more non-national in the country. It will also be equipped with a contingency plan for unexpected situations to cope well with emergencies. The Immigration Contact Centre is fully charged to re-invent itself as a dedicated organisation catering to the needs of non-nationals.



K-방역의 숨은 히어로! 1345 콜센터 상담원 인터뷰 Interviews with representatives



정은희 한국어 상담원
Jeong, Eun-hee,
Korean language
representative

Q. 상담하면서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What are some rewarding moments you can remember?

A. 언어가 서툰 민원인을 대신하여 상담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의 절박한 사연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설명을 전하고, 이후 민원인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건네실 때 제일 뿌듯하고 기쁩니다.

I sometimes get in contact with people who reached me on behalf of non-nationals who cannot speak Korean well. There are some cases they need desperate help, and I also do my best to provide them with the support they need. The moment they call me back to say thank you is the best moment I can remember as a person working as a call centre representative.

Q. 인상 깊었던 민원인이 있으신가요?

Is there a particular person that comes to your mind?

A. 전신마비 환자로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겨우 전화하신 분이었습니다. 배우자의 국적 취득 방법을 문의하셨는데, 저에게도 간절함이 전해져 더 열심히 상담해드렸습니다. 상담을 종료할 때 인사를 건네시며 눈물을 흘리셨는데,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아 힘들게 상담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That question reminds me of a general paralysis patient who reached me by getting assistance from his spouse. He desperately asked me whether there is any way for his spouse to acquire Korean nationality. I tried to give whatever information I can offer him, and as if he was moved by my commitment, he cried happy tears on the other side of the line. This was a very rewarding moment.



이수빈 몽골어 상담원
Lee, Su-been,
Mongolian language
representative

Q. 민원인을 응대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What is the most difficult thing in dealing with enquiries?

A. 처음 상담을 시작했을 때는 부정적인 답변을 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보다는 명확하면서도 정중하게 안내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만, 정책이나 제도를 변경해서라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경우 등 정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상담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전화가 오다보니 사투리나 정확하지 않은 한국어를 쓰는 경우 역시 힘들죠.

When I was a novice representative, saying “no” or “impossible” was the most difficult thing. Of course now I am trained pretty well to say no in a more sophisticated way, but still, there are difficult moments when I have to deal with some desperate enquiries. Additionally, as I receive calls from all around the country, dealing with enquiries made in regional dialects is a big challenge.

Q. 외국인들과 최접점에서 일하고 계시지요. 근무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하시나요?

You work in the front line with non-nationals. What is the reason that pushes you to do better?

A. 저 역시 재한외국인이자 귀화한 한국인으로서 낯선 타국 땅에서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최대한 쉽게 안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과 외국인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그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사소한 표현 하나 놓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합니다.

I was once a non-national here in Korea and now, as a naturalised Korean I fully understand the difficulties non-nationals go through. So I try to give the simplest answer at my disposal. These days I do my best as a bridge who connects non-nationals with healthcare officials and concentrate on the communication to be as accurate as possible to assist healthcare work.

Q. 기억에 남는 상담이 있나요?

Is there a particular person that comes to your mind?

A. 베트남어로 상담했던 여성분이신데, 외국인등록 절차를 문의하셨어요. 외국인등록은 비교적 간단한 행정업무지만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셨고, 한국인 배우자도 몸이 아프셔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간곡히 부탁하시기에 프로그램 소개, 구비서류, 출입국사무소 위치 안내 등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성심껏 전달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덕분에 행복해졌다’고 인사를 해주셨는데, 누군가에게 행복을 선사했다는 사실에 저도 행복해졌지요.

I can think of a Vietnamese national who asked how to register as a non-national in Korea. In fact, this is a pretty simple procedure. But I found out it has only been weeks she arrived in Korea and her spouse was ill at the time. So I provided her with all the information needed to get herself registered as a non-national, for example documents needed and the nearest immigration office to name a few. Right before finishing the call, she told me “Because of you, I feel so happy today”. It was amazing to hear from a person that a call centre representative like me can make somebody so happy.



양지현 베트남어 상담원

Yang, Gee-hyeon,
Vietnamese language
representative

Q. 응대 중 기억에 남는 민원인이 있나요?

Is there a particular person that comes to your mind?

A. 국적 면접심사를 앞둔 분이셨는데, 상담을 하다보니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이시더라고요. 최근에는 무엇이든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다보니 걱정이 돼서 면접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셨던 거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코로나 19가 바뀌놓은 것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성의껏 답을 하다보면 이내 뿌듯해집니다.

That question reminds me of a person who was being prepared for an upcoming interview to acquire Korean nationality. As I asked what was the problem, I get to understand that this person has difficulty with hearing. I believe she was even more concerned as it was very likely her interviewers would definitely be wearing a face mask during the interview. I assured her not to worry too much. COVID-19 seems to have penetrated to very part of our everyday lives, but whenever I get a thank you message from the other side of the line, that simple message is a great source of energy to continue on with my job. **共**

서울 사대문 안 외국인, 우리가 책임진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글 | 신시내 사진 | 이동훈

서울의 가장 변화한 거리 중 하나인 종로에 자리한 '세종로출장소'. 뛰어난 접근성 덕분에 많은 외국인이 이곳을 찾는다. 세종로출장소 직원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라는 자부심으로 외국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끝없이 개선하고 혁신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서울의 중심부에 자리한 대표 출장소

세종로 출장소는 서울 강북지역 9개 구인 중구, 종로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를 관할지로 두고 있다. 등록외국인 수가 8만 4,287명에 달하는 전국 여섯 번째 규모의 출장소다. 또 서울의 사대문 안 한복판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교통이 편리해 많은 민원인이 관할지와 관계없이 방문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 방문객이 최대 1,000명을 기록하기도 한다. 구분은 출장소이지만 방문 인원과 민원 인 수는 사무소에 가깝다.

처리하는 업무의 폭도 넓은 편이다. A-1부터 H-2까지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세종로출장소의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갖가지 출입국·외국인 업무에 적응하게 된다고. 2020년 8월까지 9만 8,000여 건의 체류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학교와 기업을 비롯해 해외공관의 상당수가 관할지에 위치해 우수인재 이종국적 제도나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처리하는 일도 다른 출장소에 비해 빈번한 편이다.

민원인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정책

세종로출장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걸쳐 전국 사무소에서 가장 많은 칭찬 글을 받았다.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 결과다.

이런 태도는 8월에 도입한 '민원심사 집중시스템'에서도 엿보인다. 이전에는 상담 중에도 대기 중인 민원인이 순서에 상관없이 직원에게 말을 걸기도 하는 등 상담 진행이 어려워지는 일들이 있곤 했다. 이에 민원인 대기 공간과 민원 창구 사이에 가벽을 설치, 두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상담을 진행하는 민원인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으로 공간을 재구성했다.

이에 관해 송은옥 세종로출장소장은 “물론 공간을 분리하면 단점도 생기기 때문에 우려도 했다”며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다행히 민원인과 직원들의 만족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고, 전보다 편안하고 집중된 환경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대한 발 빠른 대처도 눈에 띈다. 출장소가 건물 2, 3층에 위치해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으나 전용통로 운영으로 출입자 관리를 일원화했으며, 청사 입구부터 유도선과 방향선, 안내판을 부착해 민원인들에게 혼선을 빚지 않도록 안내에 신경 썼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체류비자를 연장하는 외국인의 방문이 어느 때보다 증가했다. 현장 접수를 원하는 민원인의 대기열이 아침부터 길게 늘어서는 날도 많아졌다. 이에 세종로출장소는 민원인에게 번호표를 배부, 시간대별로 제한된 인원만 입장해 민원실 내 적정 인원을 유지함으로써 방역 규칙을 준수할 수 있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
송은옥 소장

성실함과 업무능력을 두루 갖춘 직원들!

송은옥 소장은 “민원인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젊은 직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원인의 고충을 충분히 듣기 위한 민원상담실 별도 마련 ▲동행자용 보조 의자 비치 ▲인터넷 환경에 취약한 민원인을 위한 이미지 제작 등이다. 송 소장은 “이 모든 아이디어에는 민원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불편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종로출장소 직원들은 업무 외에도 민원인을 위한 개인적인 능력개발에 힘쓰고 있다. 대다수의 직원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중국어와 러시아어에 능통한 직원도 있다. 외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직원은 주말을 이용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학원에 다닐 정도다. 덕분에 민원인과의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다.

이처럼 세종로출장소 직원들은 전문적이고 성실한 근무 태도는 물론, 따뜻한 마음과 봉사 정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송 소장은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공무원으로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응대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민원인 개개인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을 잊지 않는다”며 “민원실을 수시 방문하는 행정대행사 직원도 ‘세종로 직원들은 참 친절하고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신다”고 자랑스러워했다.



세종로출장소 직원들을 칭찬합니다!



민원인의 칭찬글

“출석요구서를 받고 불안한 마음으로 방문했으나, 친절하게 상담해주시는 권혁 담당자님 덕분에 죄인이 되어 조사받는 기분은 사라지고 용기와 활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권혁 팀장

“평소와 같이 업무를 처리했을 뿐”

“처음 칭찬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에 어리둥절했어요” 그날의 기억을 회상하며 권혁 팀장이 꺼낸 이야기다. “저야 평소와 같이 업무를 처리한 것뿐인데, 무척 고마워하시더니 게시글을 쓰셨네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권혁 팀장의 업무는 사중·사범이다. 사범 업무 중 하나는 산업재해를 겪은 외국인들의 명단을 받아 비자 위반 사항을 찾아내 사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일이다. 그날 업무 역시 이런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이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거나 위반 사항이 해소될 여지가 생긴다.

권 부장은 “이 경우 회사가 적절한 소명을 했으므로 벌금을 부과하는 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이를 두고 민원인은 감사를 표했지만, 당연한 처사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세종로출장소 직원들에게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고 씩씩하게 근무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남겼다.

목표는 사무소 승격

세종로출장소는 관할지 내에 대학 37곳, 한국어 연수생을 포함한 등록 유학생이 2만 3,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 체류 인원이다. 더욱이 주한 공관원, 각종 기업 주재원 등의 전문 인력도 많아 우수인재를 위한 출입국 지원 프로세스 구축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출장소는 업무처리 능력과 시스템에 규모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세종로출장소는 이에 따르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무소로 승격을 고대하고 있다. 서울의 절반을 책임지는 곳인 만큼 세종로출장소에서는 이를 중요한 추진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송 소장은 이런 목표를 두고 함께 애쓰는 직원들에게 “그저 고맙고 헌없이 자랑스럽다”는 말을 전했다.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기를 보내는 중이지만 민원인과 동료들에게 밝게 웃어주며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중심이자 재한외국인과의 최일선에서 ‘대한민국의 얼굴’이 되어주는 세종로출장소. 앞으로도 세종로출장소만의 건강한 에너지로 대한민국 외국인 행정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감당해주길 기대한다. **共**



민원인의 칭찬글

“두 아이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려 갔는데, 한 명만 예약 신청을 해서 당황스러웠어요. 다행히 강보라 반장님이 차근차근 친절하게 안내해주셨습니다.”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서 도와드렸어요”

코로나19 이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이 출장소를 찾는 경우가 늘었다. 하지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본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선 온라인을 통한 예약이 필수다. 일부만 당일 방문을 통한 업무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예약 시 주의할 점은 업무를 처리하려는 인원수만큼의 예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보라 반장은 “이 사실을 놓치는 외국인 가족들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며 “게시판에 글을 써주신 사례를 포함해 종종 이런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사회 분위기가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것을 고려해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 한다”며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꼭 인원수만큼 예약을 하고 오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반장은 자신의 근무목표에 대해 “내가 관공서를 방문했을 때를 생각하며 민원인에게 가능한 한 친절히 다가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민원인을 대하고, 동료들에게도 더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강보라 반장

외국인 부동산 규제, 투기는 막고 투자는 늘려야



글 |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

국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최근 정부가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내·외국인 간 부동산 규제 역차별 논란이 거세다. 정부가 주택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LTV) 규제로 집을 사기 어려워졌지만 해당 규제와 관계없는 외국인들은 자국 은행 대출을 통해 손쉽게 국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이 주택투기로 국민 주거권을 위협하는 등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 3,000명의 외국인이

총 3,514가구, 거래 금액 7조 6,700억 원에 달하는 국내 아파트를 매입했다. 2가구 이상 소유한 외국인 다주택자가 1,036명이며, 이 중에는 최대 42채까지 소유한 경우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4,473건 3조 2,725억 원, 경기도에서 1만 93건 2조 7,483억 원, 인천에서 2,674건 6,254억 원이 거래되는 등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외국인의 주택 취득 활동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외국인의 아파트·단독·다세대·오피스텔 등 국내 주거용 부동산 매입 건수는 지난 6월 2,090건으로 2,000건을 첫 돌파한 뒤 7월 2,273건으로 8.8% 증가했다. 관련 통계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6년 1월

이래 최고 수치다. 마찬가지로 전체 물량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규정 및 역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해외 자본 유입이 절실했던 우리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본격화됐다. 1998년 4월 건물임대 및 분양공급업과 토지임대 및 개발공급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들이 제한 없이 국내에서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듬해 4월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면서 택지개발공급업에도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주택건설촉진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의 투자는 국내 산업육성 및 고용 활성화와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외국인 투자에 획일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투기는 막되 투자는 살리는 합리적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세대 이상의 외국인 전용 공동주택단지 건설과 공급도 가능해졌다.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적용받는 법 규정은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 크게 세 가지다.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 토지를 매입할 경우 부여되는 혜택, 외국환거래법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외국환의 유출입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주의할 점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목적 및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는 외국인토지법에 규정된 토지취득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나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상의 토지취득신고 뿐만 아니라 외국환유입에 따른 외국

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도 해야 한다. 영리목적으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에 국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처럼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면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토지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동법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신고 절차에 따라 투자신고를 해야 하며,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경우 부동산 취득신고 절차에 따라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투자과 투기,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문제는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는 경우다. 외국인들이 매입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가 32.7%

로 나타나는 등 사실상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각종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현행 1~4% 세율에 1%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이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산 뒤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더 내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토교통부 역시 실거주가 아닌 투기적 행태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투기와 투자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유입되는 투기자금과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장기간의 생산적 투자자금은 다르다.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의 투자는 국내 산업육성 및 고용 활성화와 깊은 관

계가 있는 만큼 외국인 투자에 획일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투기는 막되 투자는 살리는 합리적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답은 '이원화' 정책

거주를 위한 주택의 경우 민생과 직결된다. 공급이 부족해 가격 급등과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이 외국인 주택 투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다만 국내 경제에 도움을 주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는 오히려 규제를 풀고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민생과 관련된 분야 또는 투기적 요소가 있는 부분에는 규제를 강화하는 등 이원화 정책이 필요하다.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현행 1~4% 세율의 2배 이상으로 세율을 높여 중과하거나,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산 뒤 1년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더 내도록 하는 등 규제를 실효성 있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주택 공급량이 충분해질 때까지

는 '실거주 원칙', '2주택 이상 소유 불가' 등 외국인의 주택 투자를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 사무용 오피스와 빌딩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고용 창출 등 국내 경제 및 산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규제를 풀어 해외 자본을 적극 유입해야 한다. 세금 감면혜택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업무용 토지 역시 마찬가지다. 공장 설립을 통해 생산과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규제를 지금보다 더 과감히 풀어야 한다. 현재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를 취득하려면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취득신고를 모두 마친 후에야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이처럼 복잡한 토지취득절차를 한결 간소화하고 각종 세제를 감면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국제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

에 있다. 지엽적으로 발생하는 외국인의 아파트 투기를 막겠다고 국내 산업과 경제, 고용 등을 활성화하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일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우리에게 주는 득과 도움이 있다면, 오히려 투자가 더욱 활력을 띠도록 건강한 유인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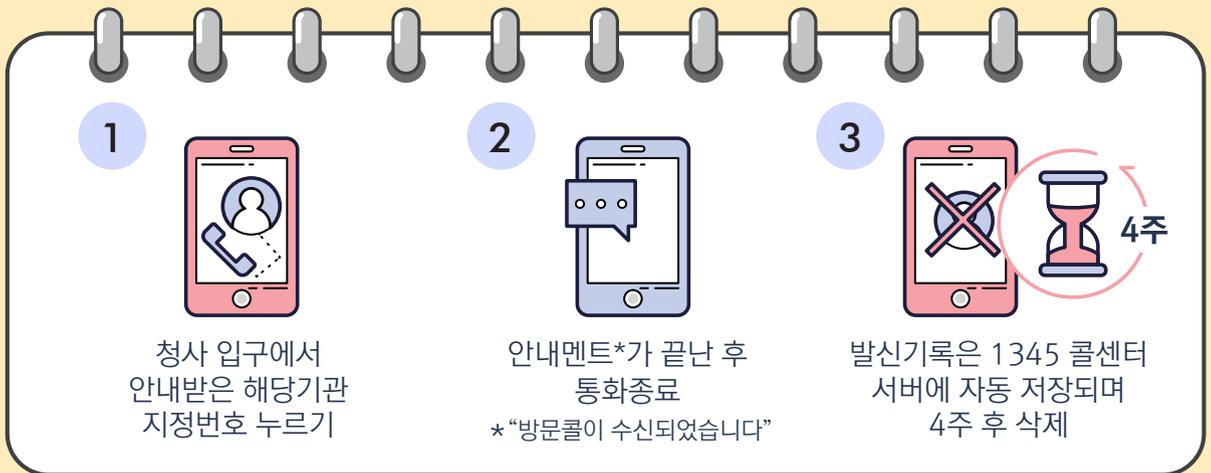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는 양날이 예리한 칼과 같다.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휘둘렀다가는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유발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국민주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택의 경우 서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투기가 강력히 규제되어야 한다. 반대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업무용 빌딩 또는 업무용 토지 등 생산적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내려놓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이 길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 손에 달렸다. **共**



9월 22일(화)부터 전화 발신기록을 활용한 출입명부 관리를 시행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사 방문객의 출입명부 처리 절차



- 휴대폰이 없는 방문객은 수기로 출입자명부 작성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



대한민국의 성장에 함께할 '국민'을 찾습니다!



'혈통'만이 국적을 가름하는 시대는 지났다. 대한민국은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에게 한국 국적을 허용하는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는 나라의 외연을 넓히고 경쟁력을 높이는 가능성의 씨앗이다.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란?

과학·경제·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국적심의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① 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
- ② 교수, 연구원 등 학술 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 ③ 저명한 작가·화가·영화감독 등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능력자
- ④ 올림픽대회 등에 출전한 선수·지도자·심사위원 등 스포츠 분야의 우수능력자
- ⑤ 국내외 기업 또는 외투기업에서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한 자
- ⑥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또는 첨단기술 분야 근무자
- ⑦ 신산업 분야 또는 첨단기술·과학 등 분야 원천기술 보유자
- ⑧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
- ⑨ 의사·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전문 분야의 특별한 지식·기술 보유자
- ⑩ UN·WHO·OECD 등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다만,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심의회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어떤 절차를 통해 선정되나요?

- ① 출입국·외국인 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당사자가 신청 및 접수
- ② 국적심의회위원회 심의·의결 및 귀화면접심사(국적회복자 면제)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
- ③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 인정



어디서 신청하나요?

전국 18개 출입국·외국인 관서 또는 재외공관에서 제출 서류 안내 및 제도 신청, 평가 기준 확인 가능

What is the Multiple Citizenship for Outstanding Talent (the MCOT)?

Based upon the assessment of the Nationality Review Committee, the Multiple Citizenship for Outstanding Talent (hereinafter the MCOT) allows an individual to obtain Korean citizenship while keeping his/her foreign nationality when s/he has a certain ability, skill or expertise in an eligible segment, including the sciences, economy and the arts, and his/her contribution can be of benefit to the Republic of Korea.

Who is entit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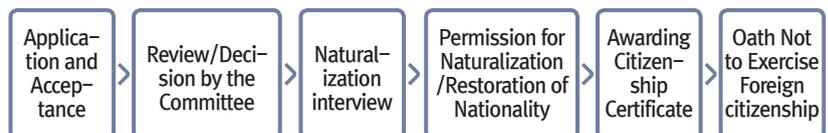
To be eligible, you must

- ① be a renowned or prominent figure
- ② be recognized with exceptional achievements in academia and research
- ③ have extraordinary abilities in arts and culture
- ④ have outstanding abilities in sport
- ⑤ be in a profession in national, international business or foreign investors pursuant to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 ⑥ be in a profession in the fields that have emerged or involve cutting-edge technologies
- ⑦ have his/her own original technology in industries pertaining to emerging, up-to-date technologies or the sciences
- ⑧ be an intellectual property holder—either national or international
- ⑨ have certain expertise and skill regarding a particular segment
- ⑩ have work experience in an international entity

* An applicant who meets one of the conditions regarding disorderly conduct, prescribed in Article 5 (2) of the Nationality Act, will be denied review for DCSOT.

What documents are required?

- ① An applicant should submit an application at an Immigration Office or a diplomatic mission.
- ② The Nationality Review Committee will review and discuss to draw a decision, and then conduct an interview for naturalization applicants. The Minister of Justice then will permit naturalization or restoration of one's citizenship. (For an applicant who wishes to restore his/her Korean citizenship, his/her interview will be waived.)
- ③ When completing taking oaths of fidelity and not to exercise foreign citizenship and receiving a nationality certificate altogether, one will be considered a legitimate dual citizenship holder.



Where to submit an application?

An application should be submitted to one of 18 Immigration Offices in Korea or Korean diplomatic missions abroad.

외국인 민원업무, Hi-Korea로 Hi-pass!



➡ 하이코리아는?

대한민국에 방문 및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 플랫폼. 출입국·고용·취업·투자 안내·민원서류 등 외국인에게 필요한 각종 행정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모든 서비스에는 로그인이가 필수!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정보에 따라 내·외국인 각자에게 해당하는 민원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 어떤 민원을 처리할 수 있나요?

① 민원신청

▲ 체류기간 연장 허가 ▲ 체류자격 변경 허가 ▲ 체류지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취업 신고 및 근무처 변경 허가 등 각종 민원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사이트 안내 절차에 따라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자동출입국심사

Smart Entry Service에 미리 지문 등의 정보를 등록하면 자동출입국심사가 가능합니다. 거소신고자를 포함한 17세

이상의 등록외국인이라면 등록센터 방문만으로도 Smart Entry Service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민원업무 방문예약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일정을 예약하면 예약시간에 맞춰 빠르고 편리한 민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방문예약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약접수증을 출력하여 창구 방문 시 제출하면 됩니다.

④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코로나19)

항공편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출국이 불가능해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나의 민원처리 현황

신청한 민원처리 현황 및 방문예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각종 조회 및 확인

홈페이지 하단의 조회 메뉴들을 통해 등록증·거소증의 유효일과 체류만료일, 고용가능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보세요!

외국인들에게는 ‘Do you know~’로 시작되는 질문이 자주 쏟아진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싸이보다, BTS보다 알려주고 싶은 게 바로 하이코리아 사이트다. 어렵고 복잡할 것 같은 행정·민원 업무도 하이코리아만 알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 HiKorea is?

The HiKorea website is an online civil petition platform for foreign residents and visitors in Korea, which provides useful administration information and e-services in various spheres, including immigration, employment, work, investment guide and civil documents.

➡ Log in is a must!

Korean nationals and foreigners alike are eligible to join the HiKorea membership and relevant civil petition services are available depending on users' log-in information.

➡ Which services are available?

① e-Application Service

The HiKorea website offers e-Application services in various spheres, including Permission for Extension of Stay, Permission for Change of Status, Report of Changes in Residence and Registration, Report of Employment and Permission for Change of Workplace. Civil petition applicants can access the relevant services following the guided procedures on the HiKorea website after authentication process.

② Smart Entry Service (SES)

Travelers who have registered their fingerprints with the Smart Entry Service (SES) program can enjoy automatic

immigration clearance services. Registered foreign residents aged 17 or more including Overseas Korean residents can join this convenient traveler program at the SES Enrollment Centers.

③ Visit Reservation Service

Visit Reservation Service allows you to make an appointment to visit a jurisdictional immigration office on your selected time and date. An appointment can be made at least one day in advance of your intended date of visit. All you need to do is print and present your reservation receipt at the counter on your reserved visit day.

④ Extension of Stay for Departure (COVID-19)

Short-term visitors who are seeking to extend their stay under unavoidable circumstances where departure from the ROK is impracticable, such as no return flights being available, can apply for Permission for Extension of Stay for Departure for period not exceeding 30 days.

⑤ My Civil Petition Status

e-Application Status and Visit Reservation information is available in real time on the HiKorea website.

⑥ Validity Checks and Useful information

Take advantage of HiKorea's convenient services to access necessary information, such as resident card validity period, expiry date of stay, employment eligibility and mores with just one click of your mouse!

INSIDE

01

비(非)자발적 국적상실 최소화 위해 국적보유신고제도 개선

법무부는 해외출생 미성년 국민의 비(非)자발적 국적상실을 방지하여 미래 인재 유출을 막고자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던 중 외국 법제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적보유신고 가능 대상을 확대하고, 보유신고 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이다.

개정안 두 번째 내용은 귀화 신청인이 국민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귀화허가신청서를 개선

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면접관이 귀화 면접심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업무방식을 국적업무에도 도입하고자 온라인 국적신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상황 시에는 국적증서 수여식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네 번째로 국적취득자가 수여받는 '귀화증서', '국적회복증서'의 명칭을 '대한민국 국적증서'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02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에 엄정 대처

법무부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활동범위제한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구속 및 처분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고의성이 높고 사안이 중대한 1명을 구속 송치하고, 시설 및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15명을 7월 30일 강제 출국 조치했다. 이들 중 13명에게는 별도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외에 격리지 내에서 개인실을 이탈하거나 마트를 방문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례는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을 근거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엄중 주의 조치했다.

지난 4월 1일,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8월 11일까지 출국 조치가 이뤄진 격리이탈자 수는 총 44명이다. 이 중 입국 후 자가격리 위반자는 28명, 격리시설 무단이탈 또는 입소거부로 출국 조치된 경우가 16건이다. 그 밖에 공항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를 거부해 송환된 외국인인 50명이다.

법무부는 입국 후 격리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격리 수칙을 준수할 것과 외출이 필요한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 후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03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출입국관리시스템 개발 본격화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7월 23일 '인공지능(AI) 기반 출입국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식별추적시스템 실증랩(이하 '실증랩')'을 개소했다.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 2,022㎡ 규모로 문을 연 실증랩은 AI 기업이 데이터 가공, 학습 및 실증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번 실증랩에는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에 필요한 시기술 개발·검증을 위해 11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은 AI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출입국자를 식별하고 범죄·위험행동을 사전에 관리하는 차세대 출입국관리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실증랩에서는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법무부의 출입국 데이터를 활용해 출입국 관리시스템의 기술력을 높임으로써 출입국 관리시장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번 개소식에는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과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AI 분야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현판식, 데이터 학습 시연, 현장 투어 등을 진행했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법무부(데이터 제공)와 과기정통부(AI 개발 지원)의 협업이 시너지를 창출했다"며 "AI를 활용한 출입국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국민들께 안전하고 신속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04

사회적 약자 위해 평생 헌신한 안광훈 신부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뉴질랜드 출신의 브레년 로버트 존 '안광훈' 신부에게 9월 24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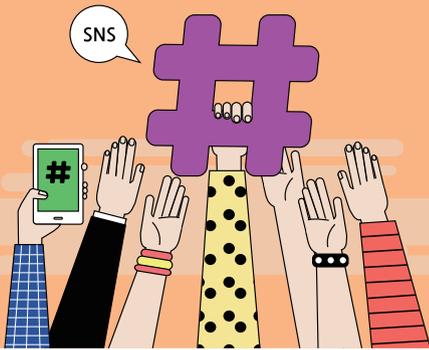
안광훈 신부는 이날 "20대 청년으로 한국에서 광훈의 이름을 받았고, 54년이 흘러 80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국적증서를 받아 이 땅의 국민이 되었다. 한국은 제2의 고향이 아니라 고향 그 자체이며, 이방인이 아닌 온전한 한국인으로 살게 되어 자랑스럽다. 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뉴질랜드 국적의 안광훈 신부는 1966년 원주교구 주임신부로 임명된 이래 지금까지 탄광촌과 달동네 주민, IMF 실업자 등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4년에는 '솔뫼공동체'를 만들고 소외된 이웃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권·봉사 분야 '아산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에 봉사하고 국가에 헌신하는 특별공로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한다. 특별공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외국 국적과 함께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2012년 인요한 박사가 최초로 특별공로 국적을 취득한 이래로 엄벨리 박사, 김하중 신부, 지정환 신부 등 총 8명이 특별공로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출입국서비스와
외국인정책정보를
만나는
다양한
방법!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

〈공존〉 페이스북 리뷰 이벤트

[명사] 공존(共存)

함께한다는 뜻이기에, 함께하겠습니다

〈공존〉 가을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았던 점도, 아쉬웠던 점도,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 소중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참 여 기 간

2020년 10월 12일 ~ 11월 15일



참 여 방 법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 계정 팔로우!
2. 공존 리뷰 이벤트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3.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경 품

의견을 주신 분 중 10분을 선정해
파리바게뜨 교환권(2만 원)을 드립니다.



당첨자발표

2020년 11월 20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당첨을 확인하세요!

※ 당첨되신 분께는 경품 수령을 위한 개인정보를 요청드릴 수 있으며
발표일로부터 1주일 내에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 경품 증정이 불가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